
수해 복구 자원봉사 평가와 미래과제



- 일시 : 2002년 10월 17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 한국자원봉사포럼
- 후원 : 행정자치부·삼성 사회봉사단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s'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임원구성

- 회장 : 금창태(중앙일보 고문)
- 총무 : 이성철(남서울대학교 교수)
- 고문 :
 - 최일섭(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대 회장)
 - 이윤구(인제대학교 총장, 한국자원봉사포럼 2대 회장)
 - 조해녕(대구광역시 시장, 한국자원봉사포럼 3대 회장)
- 운영위원
 - 고진광(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김길수(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 김영호(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통원(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민경춘(삼성미래연구소 상무)
 - 박영숙(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 박재진(기업은행 인력개발부 교수)
 - 이강현(볼런티어 21 소장)
 - 이창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최성균(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장)

□ 사무국

우)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Fax : 02-778-1047
 E-mail : kovofo@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간사 : 박신영(前 남서울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 조교,
 남서울해외봉사단)

차 례

포럼일정	1
시민자원봉사현장	2
발 제 1	3
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봉사자 참여를 위한 센터의 역할 김길수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발 제 2	9
“태풍 루사”의 수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의 성과와 과제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지정토론 1	19
김상표(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서기관)	
지정토론 2	20
재해현장에서의 효율적일 자원봉사활동 정귀옥(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보건국장)	
지정토론 3	25
김천지역 수해복구 자원봉사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 한상일(김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포럼 일정

▶ **개회식(14: 00 ~ 14: 20)**

- 국민의례
-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 개회사 —— 금창태(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 축 사

▶ **주제발표(14: 20 ~ 15: 20)**

주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평가와 미래과제

좌장 : 박 재 진 (중소기업은행 연수원 교수)

·발제자:

김길수(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이창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지정토론(15: 20 ~ 15: 50)**

·토론자:

김상표(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서기관)

정귀옥(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보건국장)

한상일(김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 **휴식 ——(15: 50~16: 05)**

▶ **전체토의 및 폐회 (16: 05 ~ 17: 00)**

시민자원봉사헌장

서 문

새 천년을 앞두고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 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재해 발생시 효과적인 봉사자 참여를 위한 센터의 역할

김 길 수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재해 발생시 효과적인 봉사자 참여를 위한 센터의 역할

김 길 수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1. 들어가는 말

이번 루사 태풍으로 지역의 많은 재산적 손실과 자연파괴 더 나아가 수많은 인명피해로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였다. 뉴스로 접하는 소식을 듣고 강릉현장을 갔을 때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다.

□96·98·99 경기 파주시를 비롯한 의정부·동두천·고양시 등 수 차례의 수해 현장에서 중앙일보와 새마을 학생 사회단체 등 많은 봉사자들이 일시에 몰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봉사자들이 직접 봉사할 수 있도록 중앙과 현지에 연락체계를 운영하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수해에는 중앙의 체계적인 역할이 없었고 현지에서도 워낙 피해가 심해서였는지 안내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봉사자들의 봉사 활동시간이 적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2.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 모집

재해 발생시의 뉴스를 통해 보니 급수가 제일 문제라는 점을 듣고 바로 사무국에서는 2톤 트럭에 생수를 구입하여 급히(2일차) 현지에 전달했다. 급수 공급도 중요하였지만 현지 실정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성품도 모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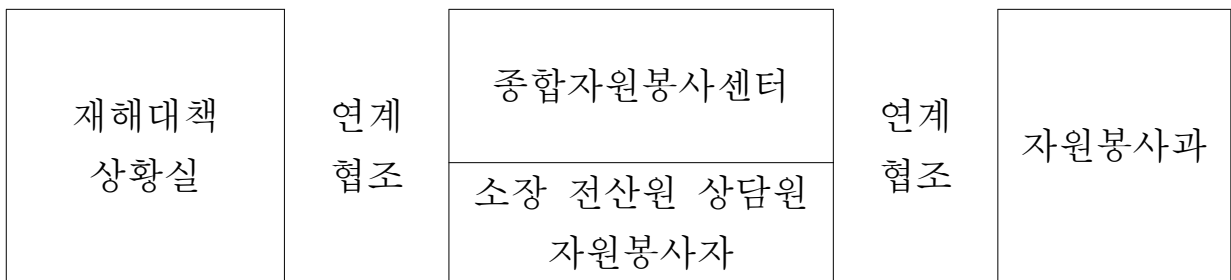
1차로 3일만에 120명의 봉사자와 2톤 트럭 2대 분의 성품이 접수되었다.

봉사자 모집은센터관련 단체에 공문발송 및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 특별히

- 재해현장의 특성인 보일러 수리 봉사자
- 벽지도배봉사자 등 특수봉사자

◎ 강릉시 대책본부(현지상황)

- 상황실 준비는 잘 되었다.
- 자원봉사센터의 서성운 소장 외 몇 명의 직원이 봉사자 접수와 현지 안내 역할
- 현지 안내에 있어서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직접안내가 안되고 행정 등으로 알려주다 보니 찾아가는 필요 외 시간 소모현상
- 현지에 도착 시 체계적 안내자가 없어 작업 지시가 늦다
- 성품 접수 시 일손이 모자라 많은 시간소모
- 임시자원봉사센터 역할
 - 피해지역 규모 및 자원봉사 수요 파악
 - 자원봉사자(자원봉사센터 및 단체·개인) 접수 배치
 - 수해복구 종합자원봉사센터와의 협조 연계
 -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 관리(안내 및 확인서 발급 기초자료 작성)
- 수해복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



임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단체와 공무원이 함께 운영을 하여 수해지역 자원봉사 수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너무 많은 봉사자가 몰려 센터 배치인력 부족 현상과 재해지역 내 안내 자원봉사자의 부재로 어려움이 많아 보였다.

3.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상의 문제점

<현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봉사자가 일시에 참여함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율적 이용을 위한 사전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 동원된 인력과 장비의 효과적 배분과 활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양한 종류의 인력과 기계·장비 등을 요구하고 다른 행정구역의 협력이 필요하다. 재해의 종류에 따라 특수 장비의 필요시에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 관련기관과 상호연계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자원봉사자의 성별·연령·전문분야·직업등 특성에 맞게 일감이 분류되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지원 체계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진실한 자원봉사자 의식이 결여된 자기 만족형 자원봉사도 있었다. 수재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보여주기 위한 생색 내기식)자원봉사 참여로 이재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었다.
-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기술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자원봉사자들의 각 개인의 보유기술이나 능력의 천차만별과 구조나 복구작업의 일부를 맡길 때 그 성공여부 얼마나 능숙하게 할 수 있는지 예상하기 힘든 점도 문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해 시 구조, 복구에 있어 자원봉사자나 단체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지원센터에서의 문제점>

- 현지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함으로 무작위 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효율적 봉사에 한계가 있다.
- 현지 사정이 파악되면 현지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 전문분야별 모집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 봉사를 하고자 원하고 있으나 어느 곳에 연락하여 참여하여야 하는지도 모르는 봉사자가 의외로 많다
- 각종성품이 접수되고 있는데 일부 성품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 봉사자들이 수해현장까지 멀다보니 이동거리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보니 실제 봉사시간이 적다 또한 숙박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봉사자도 있으나 숙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효율적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효율적인 재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원봉사단체 특성에 맞는 사전임무부여 지역내의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각급 봉사 단체들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특성에 맞는 임무분야별로 사전역할 분담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에는 나름대로 재해시 예방훈련과 임무분담 등이 준비되어 있으나, 자원봉사센터에는 거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수차례 재해를 본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태를 도표를 통해서 보겠다.

※ 참고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역할 분담표

단체명	활동내용	지정장소	비고
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농지피해조사 안내자원봉사, 방역	—	
바르게살기 파주시협의회	·대피소 쓰레기분리수거	—	수재민대피소
밝은 사회 파주클럽연합회	·급수 및 복구, 자원봉사 접수 및 안내	임시봉사센터	수해외곽지역
새마을운동 파주시지회	·방역, 피해지역조사, 자원봉사 접수 및 안내	임시봉사센터	수해외곽지역
아마추어무선연맹 파주사무소	·통신망 구축	봉사센터 및 임시센터	
재향전투의무경찰 파주시지회	·중장비 인력지원	—	
적십자 법원봉사회	·급식지원	임시봉사센터	수재민대피소
적십자 비둘기봉사회	·급식지원	임시봉사센터	수재민대피소
적십자 자유로봉사회	·구호품 전달	재해대책본부 지정장소	
적십자 조리봉사회	·급식지원	임시봉사센터	수재민대피소
적십자 통일로봉사회	·급식지원	임시봉사센터	수재민대피소
주부클럽 파주시지부	·대피소 정리 및 안내	—	수재민대피소
파주 라이온클럽	·자원봉사 접수 및 안내	임시봉사센터	수해외곽지역
파주시 모범운전자회	·차량교통통제	—	재해전지역
파주시 새마을 부녀회	·급식지원, 자원봉사자안내	임시봉사센터	수재민대피소
파주중앙 로타리 클럽	·자원봉사자 접수 및 안내	재해대책본부 지정장소	

단체명	활동내용	지정장소	비고
과주 청년회의소	·급수 및 복구, 구호품전달	재해대책본부 지정장소	
과주통일 라이온스클럽	·자원봉사자 접수 및 안내	임시봉사센터	수해외곽지역
과주통일로 로타리클럽	·자원봉사자 접수 및 안내	재해대책본부	지정지역
피플투피플 과주클럽	·통역, 안내봉사	임시봉사센터	
한국 난방시공협회	·재해지역 난방시설 점검	—	재해전지역
해병전우회 과주시지회	·인명구조 및 교통통제	—	재해전지역
과주로터리클럽	·자원봉사자 접수 및 안내	재해대책본부	지정지역
과주사랑시민회	·대피소 쓰레기 분리수거	—	수재민대피소
재향군인회연합회	·대피소 정리 및 안내	임시봉사센터	수해외곽지역
과주사람들의 아버지모임	·미담사례 발굴 및 봉사내용 홍보	—	재해전지역

5. 봉사의식과 자세에 대한교육, 홍보강화

평상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 대비 훈련에 자원봉사센터 요원은 필히 참여하여 재난대비 훈련으로 사전숙지하고 실전에 가까운 현장을 견학한다.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는 체제구축과 함께 재해 시에 자원봉사자들의 자세와 피해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전개를 위한 사전봉사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재해 시 효율적인 운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는 지속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6. 맺는 말

최근 몇 년 사이 경기북부에 몇 차례의 수해와 남부, 중부, 동부 등(강릉, 동해)집중 호우로 인해 우리 모두 예상 못한 매우 심한 재해를 보았다. 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참여를 늘리면서 나름대로 활동의 질은 좋아졌으나, 중앙과 현지와 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아직도 기초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피해 시는 나름대로 중앙에서 봉사자모집과 현지 안내를 현지와 연계하여 나름대로 자원봉사 단체들간의 연대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어 간다고 보았으나, 금년도 수해 시는 중앙에서의 봉사단체들의 준비는 전무하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해본다.

재해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기관과 공조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봉사단체에서 충족시켜주고 민간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관에서 지원해주는 이상적인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상적인 자원봉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피해 시 분야별 봉사활동이 만족할만한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하여 각종 재해로 상처 입은 재해민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서로가 보람과 고마움을 갖는 봉사는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봉사자의 역할이라고 본다.

“태풍 루사”의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와 과제

이 창 호(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태풍루사”의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와 과제

이 창 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1. 들어가며

지난 8월 31일 새벽, 동해안과 경북 김천지역을 휩쓴 태풍 루사는 한국 수해사상 최대의 피해를 냈다. 그 수해의 규모만큼 국민들의 자원봉사, 온정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무원, 군인들을 뺀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참가만 40여만명에 이르고 9월 한달간 언론사가 모은 기부금만 1천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경우 이번 수해는 역시 고질적인 문제점, 즉 자원봉사자의 ‘관리 부재’라는 문제점을 또 한번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일반 국민들은 수해지역으로의 출발때부터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채 무작정 출발을 해야 했다. 현지 재해대책본부 역시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우왕좌왕하기 일쑤였다. 그 때문에 각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글을 이번 수해 자원봉사의 규모, 성과, 내용등을 간단히 살펴보고 주로 자원봉사자의 관리와 관련, 문제점 및 향후의 대책등을 논의해 보려한다. 미래의 과제를 논하면서 선진국, 특히 일본과 미국의 재난대책 민-관 파트너십의 사례를 살펴본다.

2. 수해지역돕기 자원봉사 실적

복지부와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강원도, 영남지역의 수해지역을 찾아 도움을 준 전국의 자원봉사자 수는 9월 30일 현재 42만여명, 수재의연금 모금액은 총 1,296억원으로 집계됐다.¹⁾ 특히 모금에 참여한 국민 수는 780만명, 기업체와 각종 단체 4,000여곳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만을 보면 행자부가 수해후 보름이 지난 9월 14일까지 집계한 누계숫자는 총 2,819개 단체, 331,080명이었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역시 피해 당사지역인 강원도가 1,287개 단체에서 88,1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 54,774명, 경남 104개 단

1) 조선일보, 2002. 10. 1일자

체, 51,048명 등 순이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수해직후에는 강릉, 동해등 강원도 지역의 경우만해도 하루에 1만-2만명씩이 다녀갔다. 행자부에 의하면 주말인 9월 14일엔 하룻동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전국의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수가 166개 단체, 36,319명이었다.²⁾

복지부 및 행자부가 집계한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중,고, 대학생들을 비롯, 주부, 직장인 등 개인, 가족, 단체단위로 참여한 일반인들을 말한다. 이들외에 군인, 공무원등을 합치면 전국에서 1백만명 이상이 이번 수해를 맞아 복구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전국 1백95개의 회원대학들을 상대로 대학(생) 수해복구 참여현황을 파악했다. 대사협 조사에 따르면 당시까지 '대학'차원에서 수해 봉사에 나선 대학 수는 총 78개 대학으로 205개의 프로그램에 29,042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현장 노력봉사에 나선 대학이 68개,의료봉사를 펼친 대학이 11개 대학이었다. 별도로 성금 및 의연품을 전달한 대학은 46개, 수해 장학금을 제공키로 한 대학은 48개로 나타났다.³⁾

이처럼 이번 수해지역 돕기 자원봉사 활동은 그 수해피해가 컸던 만큼 역대 어느 재난 구호 자원봉사 활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컸다. 참고로 지난 1999년 여름 파주, 철원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당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연인원 71,761명이었다.⁴⁾ 따라서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참가자 수는 당시에 비해 무려 6배나 되는 대규모 인원인 것이다.

3. 자원봉사 관리상의 문제점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자원봉사자의 관리문제가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번 수해때 역시 그같은 문제점이 수차 지적이 됐다. 이번 수해는 워낙 피해가 크고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도 만났던 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횟수도 과거 어느때 보다 많았다. 9월 한달동안 중앙지들에 보도된 수해복구 자원봉사 기사만 2백건이 넘는다. 각 신문이 거의 매일 한 건씩, 자원봉사 관련 기사를 썼던 것이다.⁵⁾

그러나 언론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어린 현지 활동을 보도하는 다른 한편 그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지 재해대책본부나 시,군 당국의 문제점을 수차 지적을 하곤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9월 7일자 신문에 "강원과 경북지역 수해현장

2)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자 수해지역 돕기 운동 참여실적' 2002. 9. 16 현재

3)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수해 이재민을 위한 대학 사회봉사 활동 현황', 2002. 9. 25

4) 송하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와 과제', 한국자원봉사포럼, 1999. 9. 16.

5) 언론재단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KINDS 2002. 9. 1~2002. 9.30 '자원봉사' 기사검색

에서 복구작업이 시작된지 1주일이 지났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인해 구호물자 보급과 시설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복구 인력과 장비 대부분이 도시 위주로 투입되고 있어 주변 지역 수재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신문들의 비판은 중앙, 조선, 동아등 타 중앙지 언론들 모두에서 등장을 한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인력관리문제가 이번엔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다. 수해복구가 어느정도 지난 10월 9일 동아일보는 제1 사회면 특기사로 ‘뜨거운 자원봉사, 관리는 초보수준’이라는 기사를 냈다. 이어 이튿날 사설로 그 문제해결에 정부가 법 제정등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⁶⁾ 이보다 앞서 중앙일보에선 필자가 재난시 봉사자 관리 문제를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며 그 필요성을 주장했었다.⁷⁾

사실 이번 수해에선 그 어느때 보다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가 큰 문제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민-관 파트너십의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에 나타난 수해 자원봉사자의 관리 문제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본다. 그것은 또 전국 및 지역 차원의 문제를 모두 포괄한다.

1) 민-관 자원봉사 관리체계의 부재

(1) 전국단위의 문제점

가. 정부의 종합 정보 부재

수해가 나고 한달동안 전국에서 40여만명의 학생, 주부, 직장인들이 수해지역으로 물려갔다. 하루에 1-2만명꼴이다. 그러나 이들중 과연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사전에 수해지역의 정보를 알고 떠났을까? 즉, 어느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았을까 하는 얘기이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정보없이 무작정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사실 수해가 나자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수해지역 정보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돼 언론에 보도되는 지역별 피해상황과 언론이 현지에서 보내오는 기사가 전부였다. 이는 어느 재난때나 마찬가지이지만, 정부의 피해상황 집계의 경우 단순히 어느 지역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복구인력, 구호물품이 얼마나 투입됐고, 복구가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가에 대한 총괄적인 일일 집계 형식이였다. 물론 그같은 의문들에 대한 시, 도 및 시, 군별 피해지역별 세부상황 파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단순 계량적인 집계뿐이였다.

그같은 정보는 피해 및 복구규모 전체에 대한 정보는 주지만 실제로 피해현장으로

6) 동아일보, ‘뜨거운 자원봉사, 관리는 초보수준’, 2002. 10. 9과 10.10자 사설

7) 중앙일보, ‘봉사자 관리 체계화 필요’, 2002. 9. 27

떠나려고 하는 개개의 자원봉사자 인력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전국의 어느 지역 (적어도 시, 군 단위)에 얼마만한 봉사인력이 시급히 필요한가, 그리고 그 일거리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인가 하는 것 등이다.

만약 전국적인 큰 재난이 발생한 후 매일 이같은 정보들이 집계돼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훨씬 쉽게 출발지역을 정하고 정부 역시 훨씬 효율적, 효과적으로 자원봉사 인력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재난의 와중에 중앙에서 어떻게 그런 질적인 지역 정보들을 취합하겠는가 하겠지만 선진국의 예를 볼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전국의 종합정보가 없다면 피해 지역별로 각자 문의 전화를 받는 시스템 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지역 자원봉사센터들 중 상당수는 전화번호만 있지 수해기간중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수해가 나고 한동안 시, 군 재해대책본부들 역시 자원봉사 관련 문의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곤 했다. 혼란의 와중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시스템이 준비되지 못한 결과이다.

나. 민간섹터의 종합노력 부재

이번 수해때는 다른 어느때보다도 전국 자원봉사센터들의 노력이 컸다. 수많은 자원봉사 센터들이 주민들을 모아 현지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센터외에 새마을, 적십자 등 수많은 단체들과 기업,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차량을 동원했다.

그러나 그들 민간 기구들은 모두가 뿔뿔이 개별행동들을 했다. 2백여개의 자원봉사 센터들이 모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50여개의 단체들이 모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등 중앙 협의조직들이 있지만 전혀 가동되지 못했다. 그들 협의체들은 한번의 전체회의도 갖지 않았다. 각 회장단이 있었지만 이같은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을 맞고서도 어떻게 모든 센터들이, 각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해 효과적인 범 국민 자원봉사자 모집, 파견, 관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다.

센터나 단체들이 연대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원봉사자 모집, 파견만을 예를들어 보자. 수해가 터졌을 때 일반 국민, 특히 학생, 주부들이 궁금해 했던 사항은 수해지역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즉 교통편에 대한 것이었다. 센터나 단체들이 연대해 매일 아침 서울 시청앞, 강변터미널 앞, 혹은 경기도 과천, 성남 시청앞 등지에서 지역별로 버스들을 출발시킬 수는 없었을까. 센터나 단체들이 이왕 마련하는 차량들이라면 그들 회원들만을 태우고 갈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함께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량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부와 협의할 수도, 기업 협찬을 받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자원봉사계가 중앙에서, 그리고 시,도 지역별로 그같은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만 했었다면 언론의 조명을 얼마나 크게 받았을 까 생각해 보면 아

쉬움이 크다.

(2) 수요 지역에서의 민-관 파트너십 부재

자원봉사자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피해지역 현지에서의 문제점이다. 앞에서 언론의 보도 사례를 언급했지만 이번 수해때도 현지의 재해대책본부나 시, 군등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배치, 관리해야 할지 몰라 많이 우왕좌왕했었다.

현지 자원봉사자 관리는 무엇보다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가 관건이다. 그 운영을 민(民)이 하느냐, 관(官)이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다. 대개의 경우는 민이 관리를 맡고, 관이 지원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이다. 그 종합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수요에 대한 모든 정보가 취합되고 그에따라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지난 1996년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됐다. 강릉, 동해, 양양, 김천 등 이번의 수해지역들 역시 모두 자원봉사센터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들 중 어느 곳은 관이 직영하고 강릉 등 일부는 민이 위탁 경영을 한다. 관이 하든, 민이 하든 자원봉사센터들은 현지의 많은 기관, 단체들과 협력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 자원봉사센터들중, 특히 관이 운영하는 센터들 대부분은 아예 전화조차 연결되지 않을 만큼 엉성하게 움직였다. 강릉시과 같이 민간 위탁운영의 센터는 시와 손발이 안맞아 한동안 갈등을 빚었다. 잠깐 강릉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강릉시의 경우 8월 31일 새벽 수해가 나자 타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는 별도로 시청 재해대책 상황실에 센터 소장이 자리를 잡았다. 상황실과 외부 센터와의 연락, 조정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간신히 시청 상황실에 자리를 잡긴 했지만 시는 자신들이 20명이상의 자원봉사 단체들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기존 센터 활동을 제약했다. 결국 강릉시의회 부의장인 센터 이사장의 반발로 자원봉사 업무는 센터가 전담하게 되었지만 수해직후 4-5일동안 시와 센터는 몰려드는 자원봉사자들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지 못한채 서로 중복배치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⁸⁾

수해지역의 자원봉사자 관리는 단순히 효율적인 배치만이 문제가 아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숙식, 교통 등 그들이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강릉시의 경우 뒤늦게 강릉시 종합운동장 체육관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었지만 예산이 준비안돼 식사비는 도와주질 못했다. 서울의 한 종교단체가 하루 1-2천명분씩의 식사를 자체마련, 매일 그들을 도운 것이 전부였다. 이 역시 평소의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이 준비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8) 이 내용은 필자가 수집한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의 증언 임.

2) 보험등 자원봉사자 위험대비의 부족

이번 수해복구에서 두 번째의 자원봉사자 관리상 문제는 자원봉사자 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 수해 재난의 경우 특히 자원봉사자 사망, 상해 사고가 많았다. 지난 9월 11일 장애인 학교인 강릉 오성학교의 함중빈(56)교사가 학교와 기업체를 오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다 과로로 숨졌고, 16일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서 수해 복구작업을 하던 택시기사 김남태(51)씨가 과로로 쓰러진후 6일만에 목숨을 잃었다. 또 자원봉사자 신용석(42)씨는 강릉에서 봉사활동중 양다리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었다.⁹⁾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이 잇따랐지만 그들에 대한 보상책은 거의 전무했다. 강릉시의 경우 그나마 평소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1천명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해 두었을 뿐이었다.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보험제도가 정착이 되었다면 전국 어디서든 왔던 사전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경우 상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수해후 강원도 고성군은 그같은 일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느껴 1억원의 상해보험 가입과 교통비·식비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자원봉사 지원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한다. 뒤늦은 처사지만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¹⁰⁾

4. 향후의 대책방안

1) 선진국의 사례

선진국의 경우 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상례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 민간차원의 자원봉사자 배치, 관리와 구호품 접수 활동은 민간 스스로가 하도록 한다. 관이 설치한 재해대책본부는 현장 지휘, 구조 구난 및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책임을 맡는다. 평소 또는 재난발생시 민-관의 협력 파트너십이 잘 갖추어져 운영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1) 일본

일본은 특히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다. 그 때문에 평소에도 민-관의 협력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일본은 지역마다 시민 스스로에 의해 조직, 운영되는 ‘민간방재단’이 있어 재난에 대처하고 있다. 재난발생전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물자의 운반, 피난자의 지원, 숙식배려, 간호 등을 한다.

9) 중앙일보, ‘수해 자원봉사 희생 잇따라’, 2002. 9. 17일자

10) 중앙일보, ‘자원봉사자에 1억 상해보험 가입--’, 2002. 10. 10일자

그러나 이 민간방재단은 직접 현장에 투입돼 일하는 봉사조직이지 관리조직이 아니다. 관리조직으로 전국 3,400여개의 각 도도부현(道都府縣) 사회복지협의회안에 설치된 볼런티어센터가 있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센터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 봉사활동을 조정하는 곳이지 일반 재난구조 및 복구 활동 전반까지를 관장하는 조직이 못된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면 주로 우리나라와 같이 관의 재해대책본부가 모든 것을 관장한다.

그같은 일본이 일반 자원봉사 조직체 및 자원봉사 관리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지난 95년 고베 지진사건이었다. 당시 전국에서 수많은 대학생, 직장인등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고베시에 몰려 들자 그들을 파악, 효과적으로 배치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일본의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재난, 환경보호, 범죄예방 등 타 분야의 활동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하고 정부 역시 그들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을 조정, 지원할 필요가 있어 99년 소위 NPO법이라 하는 ‘공익비영리단체지원법’을 제정했다. 이후 자원봉사와 관련한 중앙정부 부처들의 상설 조직체가 만들어지고 지역 볼런티어센터들 역시 사회복지외에 기타의 분야까지 관장, 재난등 발생시 몰려드는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배치, 관리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

(2) 미국

재난에 대비, 민-관 파트너십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재난 대비와 관련, 민과 관에서 일찍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 왔고 늘 양쪽간 협력도 잘 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엔 없는 연방응급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있다. FEMA는 재난구제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기구로 10개의 지방청과 2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미국 전역의 재난관리계획수립, 피해경감 프로그램의 개발과 주요재난 발생 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에선 VOAD(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라는 재난, 재해 자원봉사조직들이 미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1969년 허리케인 카밀이 미국을 강타하자 이듬해 전국 자원봉사단체들은 한데 모여 전국재난대책자원봉사단체협의회(NVOAD)를 결성했다. 현재 미 적십자· 촛불재단(POLF)· 구세군· 라디오 릴레이연맹 등 34개의 전국단체 및 52개주와 시· 군 단위의 수많은 지역 VOAD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들 VOAD들은 매년 정기적인 회합· 교육훈련 · 정보공유등을 하며 재난에 대비한다.¹¹⁾

이 VOAD 들의 활동을 FEMA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9·11 테러가 났을 때 정부의 재난 구조반외에 적십자 구조요원 등을 신속히 투입하고

11) <http://www.nvoad.org>

참조

현장에 민간단체들이 임시 합동 구호센터를 설치, 자원봉사와 함께 헌혈· 구호금품등을 접수했다. 그후 촛불재단 등 전국 자원봉사단체들이 연대해 범국민 자원봉사·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평소 그같은 훈련의 결과이다.

부시 대통령은 9·11 이후엔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아 모든 민·관의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 조정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전미자유수호봉사단(USA Freedom Corps)을 결성했다.

2) 우리의 개선방향

끝으로, 우리나라 재난 자원봉사 관리의 개선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다음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몇가지 개선방안이다.

(1) 정부의 재난·재해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마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현지의 자원봉사 인력수요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야 한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선 단순히 매일의 피해 및 복구상황만을 양적으로 집계할 것이 아니라 시,군 및 읍,면,동 단위로 매일 매일 얼마나한 자원봉사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가를 알리는 질적 정보를 제공, 중앙대책본부가 이를 취합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과연 태풍피해와 같은 대규모의 재해로 통신 상황조차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같은 질적 정보가 가능할까? 누가 그 업무를 맡을 것인가?

필자는 그 업무는 피해지역의 시,군 등 관(官)보다는 민간 단체가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즉 미국의 VOAD와 같이 전국의 민간단체들이 재난구호 자원봉사단체로 지정만 되어 있고 평소 늘 훈련만 되어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지역 단체들중 한 곳은 현지 자원봉사 수요만을 파악, 중앙에 송신하는 임무만을 맡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선 휴대전화 보급률이 세계최고를 기록하는 만큼 단체지정과 업무만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정부 종합 시스템의 구축의지이다. 먼저 우리도 미국의 FEMA와 같은 중앙정부 청(廳) 단위의 재난대비 상설기구가 있을 필요가 있다.

(2) 전국차원의 민간 협의기구 조직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민(民)의 활동이다. 따라서 정부에 모든 것을 기대기에 앞서

민간 스스로 중앙 협의기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즉 미국 NVOAD와 같은 중앙 조직을 구성하고 모든 참가 단체들이 재난·재해를 대비한 공동 훈련을 수시로 해야 한다. 미국의 FEMA와 같이 이 NVOAD의 조직과 운영을 정부가 지원하면 좋을 것이다. 재난을 대비해 중앙차원의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구현하는 것이다.

(3)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강화

이번 수해 자원봉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지역 자원봉사센터들중 상당수가 지역할을 못한 점이다. 센터는 센터대로, 단체들은 단체들대로, 관은 관대로 각각 따로 놀았다. 그들을 한데 통합, 조정하는 일이 자원봉사센터임에도 제 임무를 못한 것이다. 그것은 많은 자원봉사센터들이 관 직영이라 해당 공무원들이 다른 재해대책 업무에 차출된 탓이 아니었던가 싶다.

지난 몇년동안 경기도 북부지역 수해시 파주시, 철원군 등은 수해지역에 ‘임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그곳에서 배치를 받도록 했다. 98년 여름 수해 첫 해에 그같은 통합 자원봉사 센터가 없어 자원봉사자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행자부와 새마을, 중앙일보 등이 앞장 서 현지에 임시센터를 만든 것이 계기가 됐다. 99년도 수해때는 파주, 연천, 동두천 등 6개 지역에 임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돼 총 71,761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했다.¹²⁾

이번 태풍 루사 수해때는 현지에 자원봉사센터가 이미 설치가 되었음에도 강릉, 김천 등 몇 곳을 빼고는 어떤 일인지 활동이 충분치 못했다.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강화는 재난·재해 대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임이 새삼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

(4)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의 제정

자원봉사센터의 강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등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자원봉사 전국재단, 혹은 전국센터가 설립되면 앞서 언급한 중앙차원의 민-관 협력, VOAD운영과 같은 필요성들도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요 언론들이 공감, 기사로 지원하고 있으니 연 내에는 꼭 법안이 통과되도록 자원봉사계가 모두 애를 쓸 필요가 있다.

12) 송하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와 과제’, 한국자원봉사포럼, 1999. 9. 16.

5. 마치며

이상으로 수해 등 재난대비 자원봉사와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제공·효과적 배치 등 관리(management)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개선방안 역시 민-관의 기구설치 및 공동 노력뿐이라는 점이다. 그점에서 미국의 NVOAD, VOAD, FEMA 등과 같은 기구들의 예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정부 및 자원봉사 기관 단체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정부가 만약 과거 하던대로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군·공무원과 새마을·적십자 등 소위 ‘관변성’ 단체들을 ‘동원’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은 요원할 것이다. 이제는 재해가 발생하면 학생·주부·회사원 등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몰려오고, 그들의 손길 역시 복구면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발상을 전환해야 할 때다. 그점에서 이번에 강릉시장이 신문기고를 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원봉사지원법의 제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¹³⁾

민간 역시 정부만을 쳐다보고 스스로의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1969년도 허리케인이 미국을 휩쓸고 간 후 이듬해 전국의 자원봉사단체들이 한데 모여 NVOAD를 결성한 것은 우리 민간 자원봉사계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이번 태풍 루사피해를 계기로 우리 민간 자원봉사계도 분발된 노력을 보일 때다. 끝.

13) 심기섭 강릉시장, ‘자원봉사지원법 제정을’, 조선일보 2002. 9. 25일자 독자투고.

토론 1 _____

김 상 표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서기관)

토론 2 _____

재해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정 귀 옥 (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보건국장)

토론 3 _____

김천지역 수해복구 자원봉사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

한 상 일 (김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 토론 1 >

김 상 표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서기관)

< 토론 2 >

재해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정귀옥(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보건의국장)

1. 대한적십자사의 수해구호활동

1. 수해구호 활동기간 : 2002.8.4 ~ 9.14 (42일간)

집중호우 수해구호 활동기간	2002.8.4 ~ 8.31 (28일간)
태풍 「루사」 수해구호 활동기간	2002.8.31 ~ 9.14 (14일간)

2. 구호세대 및 환산금액 : 24,491세대 2,145,211천원 상당

집중호우 구호세대 및 환산금액	5,100세대 582,178천원
태풍 「루사」 구호세대 및 환산금액	19,391세대 1,563,033천원

3. 주요 구호품 지급내역

구분	백미 (10kg)	라면 (상자)	담요 (매)	누비이불 (매)	구호의류 (착)	취사도구 (조)	가스렌지 (개)	일용품 (셀)
합계	5,334	9,168	8,832	12,572	7,276	2,938	4,187	6,904
집중호우	1,862	3,024	3,040	4,489	4,241	622	1,626	2,350
태풍 「루사」	3,472	6,144	5,792	8,083	3,035	2,316	2,561	4,554

※ 생수(1.8ℓ, 12병입) 600상자, 내의 25,000벌, 반바지 10,000매, 티셔츠 10,000매 - 강원(9.3~5) 및 충북(9.4) 지급

4. 구호급식소 운영 : 30개소 135,072명 급식

집중호우 기간 중 운영내역	김해시 한림면 등 15개소 69,422명
태풍 「루사」 기간 중 운영내역	강원도 강릉시 등 15개소 65,650명

5. 구호활동인원(연인원) : 11,550명(봉사원 10,091명 / 직원 1,459명)

집중호우 기간 중 활동인원	6,229명(봉사원 5,467명, 직원 762명)
태풍 「루사」 기간 중 활동인원	5,321명(봉사원 4,624명, 직원 697명)

6. 특 기 사 항

○ 서울적십자병원 및 적십자간호대학 무료진료활동

구 분	합 계	1 차	2 차	3 차
진료기간	6일간	2002.8.7~8	2002.9.7~8	2002.9.12~13
진료장소	3개소	강서구 화곡동 호돌이공원	삼척시 미로면 상하정리 일대	삼척시 사직동 미로면 사둔리
진료인원	628명	158명	230명	240명
활동인원	43명	의사2, 간호사1 봉사원 등 21명	의사3, 간호사2 직원 등 7명	의사2, 간호사2 간호대학생등15명

○ 침수지역 재해복구 합동봉사활동

- ⌚ 봉사기간 : 2002. 8. 18 ~ 8. 24 (6일간)
- ⌚ 봉사장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및 함안군 법수면
- ⌚ 활동기관 : 김해시 한림면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대전·충남,
(8.21~8.24) 전북·광주·전남·경기지사, 경남혈액원
등 10개기관 1,395명
및
함안군 법수면 : 대구·경남지사 등 2개기관 244명
(8.18~8.19)
- ⌚ 활동내용 : 가재도구 정리 및 세척, 빨래, 쓰레기 수거, 환경정리 등

○ 화훼단지 재해복구 봉사활동

- ☞ 봉사기간 : 2002. 8.12 ~ 8.14 (3일간)
- ☞ 봉사장소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룡리 화훼단지
- ☞ 활동인원 : 보은·청원·청주·진천지구 봉사원 및 직원 등 275명
- ☞ 활동내용 : 침수 화훼단지 하우스 30동 및 주택 50세대 복구활동

○ 침수가옥 및 농경지 재해복구 봉사활동

- ☞ 봉사기간 : 2002. 8.9 ~ 8.12 (4일간)
- ☞ 봉사장소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성환읍 등 8개 읍·면·동
- ☞ 활동인원 : 해당지역 봉사원 및 직원 290명
- ☞ 활동내용 : 침수가옥 복구, 세탁, 청소, 및 침수 농작물 복구활동

○ 직원 재해복구 봉사활동

구 분	합 계	1 차	2 차
봉사기간	4일간	2002.9.7~8	2002.9.12~13
봉사장소	2개소	삼척시 미로면 상·하정리 일대	삼척시 노곡면 상군천리 등
활동인원	232명	서울지사 106명	본사 등 16개기관 126명
활동내용	피해가옥 토사제거, 마을앞 도로정비, 가재도구 정리·세척, 쓰레기 수거, 빨래, 주변 환경정리 등		

II. 재해시 자원봉사활동 효율화에 관한 보충 의견

1. 자원봉사단체간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체 구성

재해상황은 돌발성, 불예측성, 긴급성 그리고 봉사활동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단체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전 대비가 중요한 분야이다. 대비가 없이는 긴급 대응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단체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한 조직적인 현장구호활동을 위해 재해구호활동을 원하는 단체들은 사전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교류를 하는 등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체로 재해현장을 찾는 봉사자들은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봉사단체간의 사전 등록을 통한 자원에 대한 파악은 재해현장 활동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의 사전 파악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업무배치를 이루어 낼 수 있고, 재해상황별로 적절한 인력수급을 조정할 수도 있어 체계적인 구호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 재해구호기구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인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긴급하다고 생각된다.

재해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다른 활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재해현장에 대한 피해조사를 기초로 소요되는 물자가 판단되어 지고, 구호품을 전달하고 구호장비를 운영하게 되면서 자원봉사인력이 곳곳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상황간의 관계성 그리고 타 기관과의 연계성을 항상 고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재해관리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재해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심기구로서 민관협력체 구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분야에 있어서는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가 재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재해구호요원 양성

재해현장의 상황은 평시와는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돌발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해상황에 맞추어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을 배치하는 사람들은 현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물론 어떻게 전개되어나가기라는 것을 순간 순간 판단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하다.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재민 정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며, 구호물자를 나누어 줄 때에는 어떤 원칙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적십자사의 경우, 7만여명의 자원봉사원들의 재해구호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비상통신훈련, 재해구호교육 및 재해구호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재해구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단체소속 간부 봉사원을 중심으로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대상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할 것이다. 재해구호교육은 가정내 안전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와의 연계성이 강하여 관변성의 오해를 갖을 수도 있지만, 제네바협약에 의거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각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후원을 받고 있을 뿐,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따라 국제적십자사연맹,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함께 세계도처에서 인도주의사업을 전개하는 국제구호단체입니다.

김천지역 수해복구 자원봉사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

한상일(김천자원봉사센터 소장)

I. 들어가며

지난 9월, 전국에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연일 속출했다.

경상북도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김천시의 경우 총 38명의 인명피해와(사망 23명, 실종 14명, 부상 1명) 3,298세대 8,99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건물 4,183개동, 농경지 21,312ha가 침수되는 등 잠정적 피해액 3,433억원, 1조원 복구비용과 5년 이상의 복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경부선 김천철교 교각 2기 전도로 인한 철도통제, 김천시 전역 단수 및 정전사태 등 김천시는 유사 이래 최대 태풍 피해를 입게 되었다.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다음날인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김천시 수해 복구 인력 지원현황은 아래 <표 I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856,482명으로 김천시 수해지역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앞서 주제발표에서 다루었듯이 수해복구 지원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본 토론자는 수해복구 자원을 담당할 자원봉사센터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써 앞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평가와 미래과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발표자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며 아울러 김천지역의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표 I-1> 김천시 수해복구 인력 지원 현황

계	자원봉사자	군인·경찰	직능단체	예비군민방위	주민	학생	공무원
856,482	856,482	42,982	8,934	5,895	752,873	8,706	25,711

II. 김천시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황 및 평가

1. 자원봉사 관리체계 부재

김천시의 수해복구 자원봉사 관리는 크게 김천시청과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운영하는 김천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물론 김천시에도 관이 직영하는 김천시자원봉사센터가 있으나 수해기간 중에도 전용전화기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심지어 시청직원들도 관에서 직영하고 있는 김천시자원봉사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천시에서는 전국에서 빗발치는 자원봉사 관련 문의에 대해 신속한 답변은 물론 현장에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수해복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긴급 혹은 임시 자원봉사센터나 조직을 구성하지 않는 등 자원봉사 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앞의 주제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자연재해와 같이 긴급한 일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나 운영을 민이 하느냐 관이 하느냐를 따지기 보다는 이전에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민-관의 발빠른 협력체계의 구축이 최우선인 것이다.

2.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및 현장 배치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다음날,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은 침수주택에 쌓인 오물과 쓰레기, 토사 등을 치우며 자원봉사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김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전화로 자원봉사를 문의해 오거나 혹은 센터를 거쳐 수해복구지역으로 직접 투입되는 경우에 15분 정도의 간단한 안전수칙 및 활동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수해복구 현장에 배치하였다.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실시는 자원봉사자의 태도나 자세의 변화로 나타나 이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실제로 현장에 파견된 자원봉사자의 경우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면 파견지역의 현재 상황 및 봉사자 수요처까지 직접 조사하여 보고해 주는 등 사례가 이어졌다.

그러나 수해지역의 피해상황과 필요인력에 대해 김천시청과 김천자원봉사센터간의 종합적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배치에 있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김천자원봉사센터와 김천시의 지원이 중복되어 자원봉사자들이 불필요하게 한 곳에 집중되기도 하고 이를 다시 재배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한편으로 각 대학, 단체들이 수해현장의 대거 인력투입을 통한 행사성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수해현장의 시급한 요청사항-중장비 지원 등-에 있어 협조가 미비하였다.

3.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체계 부재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역내 연고자가 없는 개별봉사자 특히 대학생, 휴학생은 대부분이 김천이 아닌 타지역에서 기차나 버스 등을 이용해서 김천 수해지역으로 오기 마련이다.

이들은 숙식과 수해현장까지의 이동수단을 자원봉사 이전에 문의해오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불가능하자 심지어 자원봉사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물론 긴급 상황속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매년 발생되어 오던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예방적 논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인근 대학교 강당이나 시청 강당 등을 이용한 긴급 숙박체계 마련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이 끝난 후 잠잘 곳을 찾기 위해 교회나 성당 혹은 노인정, 여관 등을 찾아다니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김천시내에서 수해복구 현장까지 40-50여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방향이 같거나 시간이 맞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있어 이들과 동승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나 간혹 적절한 이동수단의 미비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봉사자들의 경우 발길을 되돌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했었다.

Ⅲ. 김천자원봉사센터의 활동 현황

1. 수해복구 긴급 지원팀 구성

수해복구 자원봉사 관리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02년 9월 1일부터 수해 현장 지원(수해지역 현황 파악,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 자원봉사자 관리 등)과 센터관리(자원봉사자 접수·교육·관리, 자료수집, 보도자료 작성, 관공서 협력 지원), 대외협력요청(기업체 및 단체 지원요청, 후원금 및 물품요청 등) 이상 3개 분야별로 역할을 세분화한 수해복구 긴급지원팀을 구성하여 수해에 신속하게 대응,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황자료 정리 및 관련기관 참고자료 제공

일일 자원봉사활동 현황자료, 미담사례, 수요처, 수해복구 현황에 대한 자료 등을 정리, 집계하여 관련기관(관공서, 민간단체, 언론사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3. 수해지역 주민욕구조사 실시

김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해복구 작업이 시작된 지 10여일이 경과된 후에 인근 대학교의 협조로 수해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피해정도, 피해위치 약도, 후원물품 요청사항, 자원봉사자 요청사항 등이었으며 본 자료는 긴급지원이 어느 정도 실시된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복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효율적 지원을 실시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향후 유사 재해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루어졌다.

4. 수해지역 현장담당 및 모니터 요원 투입을 통한 발빠른 현장상황 전달

김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들이 모두 수해현장에 투입되어 정작 수해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인력이 부족함을 인식하여 현장 담당 직원과 함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수해지역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였다.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 수해복구 진행정도, 자원봉사자 활동현황, 필요구호 물품을 중심으로 한 발빠른 현장조사는 수해지역에 신속한 지원을 가능케했다.

5.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 조사와 자원봉사자의 접수, 배치 못지 않게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요청된다. 본 센터에서는 『자원봉사 릴레이 운동』, 『수해복구지역 중장비보내기 운동』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 재해로 인한 실직가정을 위한 『집중수해지역 실직가정의 생활안정금 지원을 통한 가정 살리기』 사업을 제안하여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IV. 마치며

이상에서 태풍 ‘루사’로 인한 김천시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황과 문제점, 센터 활동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관간의 협력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해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 민-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피해현황, 필요인력 현황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는 물론이고 아울러 교통이나 숙박 시설 마련 등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민-관의 지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못지 않게 민간기관 간의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지원에 있어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본 센터에서는 이를 계기로 하여 경북지역 5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volunteer network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각 대학장을 중심으로 한 1차 회의를 거쳐 2차 실무자간 회의가 조속히 열릴 예정이며 이는 지역대학의 사회봉사활동 활성화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망 구축 측면에서 볼 때 그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점들이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의 긴급 지원체계마련이나 봉사자관리, 민-관의 역할정립 등 수해복구 자원봉사관리에 있어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여러 문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조속한 대비책을 마련되어야겠다.

회원가입 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을 드립니다.

- 포럼에서 발간되는 소식지를 격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정기포럼,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회마다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Fax : 02-778-1047
 E-mail : kovof@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 절 취 선

포럼 (회원) 입 회 신 청 서

성명	한글			주민 등록 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 위		
연 락 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팩스		
연 락 처	주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휴대 전화		
전자 우편						
<p>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2. . .</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_____</p>						

제32회 정기포럼 자료집
수해 복구 자원봉사 평사와 미래 과제

발행일 : 2002. 10. 17

발행처

한국자원봉사포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Fax : 02-778-1047

H-page: <http://www.volunteerforum.org>
